

자료제공 : 2024. 6. 7.(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담당관

김동섭

02-2133-9259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안전지원팀장

조은재

02-2133-6160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전 지키는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 신청 개시(6.3.) 다음 날 5천 세트 전량 조기 마감...높은 호응 고려해 확대 검토
- 비상벨 누르면 점멸등 사이렌 작동 및 경찰신고, 보호자 긴급문자도 자동 발송

-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 서울시는 '안심경광등'이 안전 이슈에 특히 더 민감한 1인점포에 꼭 필요했던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청 페이지 댓글에는 “진짜 필요했다.” “밤늦게 설거지를 하다보면 무서웠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혼자 있을 때 노숙자가 돈 달라고 들어온 적도 있고,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신고도 못하고 상처만 받았던 기억이 난다. 누를 일이 안 생겼으면 하지만 혹시 몰라 신청한다.” 등 1인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 서울시는 이런 높은 호응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인점포 안심경광등'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1인점포 안심경광등’은 이상동기범죄(물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진 1인점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위험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신고까지 연계되는 장치다. 오세훈 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 ‘안심경광등’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가게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 또한,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1인점포 ‘안심경광등’ 이미지〉


안심경광등	비상벨	스마트허브	사인보드
			


- ‘1인점포 안심경광등’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된 것을 통해 최근 1인 가게 사업주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향후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 붙임1 : 안심경광등 신청 페이지 댓글 캡처
- 붙임2 : 안심경광등 간담회 사진


 참 좋은 정책인듯 합니다
 ♡ 0 👍 0

 혼자 있을때 노숙자가 돈달라고 들어온적도있고, 아빠뽕 방문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적도 있었는데 당시엔 지금보다 어려 대처방법도 생각 못해 아무런 신고도 하지 못하고 상처만 받았던 기억이 나요. 누를일이 안상졌으면 하지만 복시물라 신정합니다.
 ♡ 0 👍 0

 밤늦게 설거지 하다보면 무서웠는데 이런사업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 0 👍 0

 혼자 밤늦게 일할때 좀 무서웠는데 이런 사업 너무 좋아요
 ♡ 0 👍 0

 저도 밤늦게 혼자 영업해서 조금 불안할때가 있는데 좋은제도 고맙습니다
 ♡ 0 👍 0

 신탄동 1인사업자 개인카페입니다.
 갈무원.
 교사 산책 중 산에서일어난 사고..
 제 카페 바로앞에 있는 산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무서워서 폐업하려다가 바로폐업은 어려워서..
 더 하고있습니다..

 저도 신탄동 미성동에있는 카페운영자입니다. 공원사건이 이쪽근처라 작년에는 원래영업시간보다 일찍 문닫고 운영했었어요. 밤11시까지 여자인 저 혼자 가게를 하다보니 작년엔 정말 무서웠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잊고 지내다가 맞다 우리지역이었지 생각났어요. 이런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네요.
 ♡ 0 👍 0

 1층인데 건물 안쪽에 있어서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서비스 너무 좋네요~^^
 ♡ 0 👍 0

 업소가 2층인데 점심시간엔 알바가 1명있지만 오후엔 혼자 해서 저녁 남자 손님이 들어오면 겁이나더라고요. 1층은 뛰어남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수도 있지만. 2층이라 여러가지 위험하다는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도 많고 지하철공사로 인해 지역이 좀 험한동네라서 늘 긴장하게 되요. 그래서 남자손님이 들어올 핸드폰을 들고 입구 쪽으로 가서 식사끝날때까지 있기도 해서 저에겐 꼭 필요한 시스템 같아요
 ♡ 0 👍 0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뉴스로 어지럽구. 언젠가 11시 넘어. 포장을 한다더니 먹구가도 되냐고. 손님이. 한뼘 있어서. 그러라구 했는데. 밥은 먹지않고. 핸드폰 영상만 들어놓구. 마지막손님. 나구도. 12시가 넘어. 끝났다 하니. 자기 아직 밥다안먹었다고. 정말 무섭드라구요. 골목안쪽이라 오가는 사람도 없고. 자고 있는 아들 들었네요.
 ♡ 0 👍 0

 손님이 술취해서 주섬주섬 끌겨내고 들어온적이었는데...잠깐이지만..혼자있어서 전화신고도못하고..공포에 떨었는데... 진짜 필요했다 나는TT
 ♡ 0 👍 0



<간담회 사진1>



<간담회 사진2>